



만세삼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이 출발에 앞서 3·1절의 의미를 기리며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출발전 몸풀기 색색의 옷을 입은 여성 하프코스 참가자들이 대회 출발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생동하는 봄의 정기 받고 힘차게 달렸다



하프코스 완주의 기쁨 하프코스에 참가한 이성환(챔프마라톤클럽)씨가 결승선을 앞두고 완주를 기뻐하며 경중 뛰어오르고 있다.

사진=나명주·최현배·김진수 기자

딸 뽀뽀에...시민 응원에...맛사지에... 힘이 납니다!



황규영(현대삼호중공업 마라톤동호회)씨가 하프코스 결승선에 들어온 뒤 딸의 환영을 받고 있다.



풀코스 100회 완주 주성남(45·광주 광산구)씨가 처음 풀코스 완주를 이뤘던 3·1절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 100회 완주에 성공한 뒤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에 나선 학생들이 상무시민공원에 마련된 대회 결승선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있다.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 생활체육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스포츠 마사지로 완주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있다.